

## 재즈적 글쓰기의 연원이 된 '우리 시대의 고전'

잭 케루악, 조지 셰어링, 《길 위에서》

비트작가인 잭 케루악에게 재즈는 세계관 그 자체를 의미했다. 《길 위에서》에 등장하는 조지 셰어링과의 만남은 재즈를 향한 그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재즈처럼 쉽 없이 써내려간 120피트의 원고를 일러 뉴욕타임즈는 '거의 충격에 가까운 아름다움'이라고 말했다.

“저 사람이야! 바로 저 사람! 신의 경지야! 위대한 셰어링! 그래! 그래! 그래!”

셰어링도 자기 뒤에 그런 미친 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딘(닐 캐시디)이 내지르는 소리를 하나하나 들을 수 있었다. '바로 그거야. 그래!' 딘이 고향 치니까, 셰어링이 몸을 흔들며 웃었다. 셰어링은 땀을 뚝뚝 흘리며 피아노에서 일어났다. 1949년 그가 정열을 잃고 상업적으로 변하기 이전, 한창 때의 일이다. 그가 떠나버리자, 딘은 빈 피아노 의자를 가리키며 '신이 떠난 자리'라고 말했다.”

1948년, 뉴욕으로 놀러온 닐 캐시디를 맞아 잭 케루악은 뉴욕 52번가에 자리한 전설적인 재즈 클럽 '버드랜드'에 조지 셰어링의 연주를 들으러 갔다. 실내에는 그들과 조지 셰어링 외엔 아무도 없었다. 아직 무명이었던 잭 케루악과 조지



잭 케루악에게 재즈는 글을 쓰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자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산문'으로 규정되는 그의 문장이 지닌 아름다움은 여기서 비롯한다.

1949년 조지 셰어링의 음반이 90만장이나 팔리며 음악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자, 잭 케루악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게 된다. 중산층의 안락한 삶을 거부하는 비트 세대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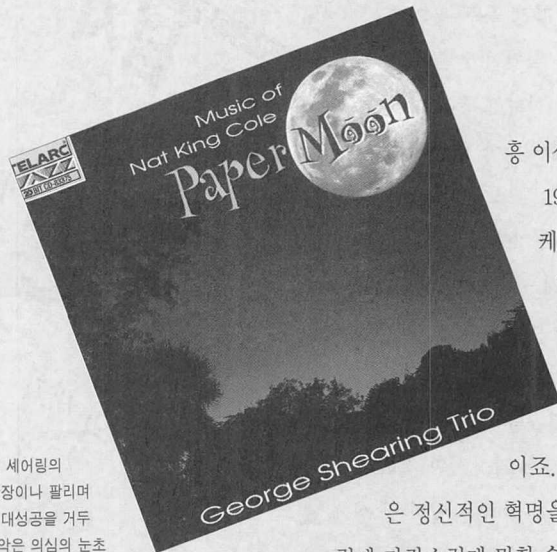
셰어링이 서로 만나는 순간이었다. 비트 세대의 기념비적인 소설 《길 위에서》(On The Road)에서 이 만남은 이렇게 묘사된다.

### 1948년, 잭 케루악과 조지 셰어링 만나다

1919년 런던에서 태어난 조지 셰어링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으로 런던로트지 시각장애인학교를 4년 다닌 게 정규교육의 전부였다. 1930년대 이미 실력을 인정받아 BBC 라디오에 출연하기도 했던 그였지만, 1947년 미국으로 건너갈 때만 해도 아직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조지 셰어링의 피아노 연주가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1949년이다. 그 해에 그는 5인조 밴드를 조직하고 〈빗 속의 9월〉(September in the Rain)이란 앨범을 MGM에서 발표했다. 이 앨범은 자그마치 90만장이나 팔리는 엄청난 히트작이 됐다. 이를 일러 잭 케루악은 “정열을 잃고 상업적으로 변했다”고 표현했다.

조지 셰어링과 잭 케루악, 닐 캐시디는 서로 인연이 많았던지 1949년 시카고 노쓰클라크 거리의 한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다. 닐 캐시디가 그를 먼저 알아보고 “셀(잭 케루악), 저기 신이 있어”라고 말한다. 조지 셰어링은 사람들의 간청에 못 이겨 한 시간 정도 즉흥적으로 연주하고 내려가지만, 잭 케루악의 시선은 그다지 끊지 못하다. 왜일까? 조지 셰어링은 상업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혹은 잭 케루악에게 재즈란 단순한 여



흥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1952년 한 인터뷰에서 잭 케루악은 이렇게 말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냉장고와 전축의 노예가 됐습니다. 너 무든이 많아진 것

이죠. 하지만 우리 비트족들은 정신적인 혁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재즈였다. 비트 세대에게 재즈는 중산층의 지루한 삶을 넘어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요소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재즈는 흑인의 고통과 환희가 모두 담긴 주술적 음악이었다.

잭 케루악에게 재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요소다. 《지하인들》(The Subterraneans)의 서문에 그는 이렇게 썼다. “재즈와 밥, 말하자면, 한 테너 주자가 숨을 들이키고 색소폰을 길게 분다.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 그리고 그 숨이 그쳤을 때, 그의 가락은, 그의 음악은 끝난다. 마음 속의 호흡이 끝날 때, 내 문장이 끝나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 거기에 끔찍한 분석은 사라지고 재즈의 활기와 자유와 유머가 깃든다.”

### 케루악에게 재즈는 창작방법론

그에게 재즈란 창작방법론이었다. 1951년 4월 2일 케루악은 글을 써내려가는 동안 자신의 호흡을 잃을까봐, 종이를 이어붙여 12피트짜리 원고를 만든 다음 전동타자기로 색소폰을 붙여내려가듯 멈추지 않고 원고를 써내려가 같은달 22일 《길 위에서》의 집필을 끝마쳤다. 총 길이 120피트에 달하는 두루마리 형식의 원고였다. 그 후 바이킹출판사가 1957년 초판을 발행하기까지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출간되자마자 바이킹출판사의 편집자인 헬렌 테일러가 말한 바대로 이 소설은 “우리 시대의 고전”이 됐다.

— 김연수 기자